

비대면 뉴노멀 시대 ‘온택트 버스킹’ 인기

‘쿨한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
전남도 새 관광트렌드 론칭
전남 곳곳 8회 라이브 방송
가수 공연, 관광지·특산물 소개
2개월간 1만7000여명 시청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쿨한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가 최근 고흥 녹동 바다정원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코로나19 관광 대안으로 야심 차게 선보인 온택트 버스킹 공연이 뉴노멀 시대 새로운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쿨한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가 최근 고흥 녹동 바다정원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한 방식을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워진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전남의 야간관광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함께 여름밤을 느끼며 소통하기 위해 전남

도 관광과와 해변인실, 농식품유통과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매주 1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담양과 해남, 순천, 목포(2회), 완도, 신안, 고흥 등에서 8회에 걸쳐 방송이 진행됐다.

온택트 버스킹의 취지에 맞게 모든 방송은 시청자들의 참여로 구성됐다. 코

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비롯 방송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연을 골라 실시간 댓글을 DJ와 게스트가 읽어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015B, 김형중, 노라조, 더크로스 등 매주 다양한 가수가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음악과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쿨한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는 방송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특산물도 소개해 지역 상권 살리기도 동참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지역 주민들의 맛깔난 지역 홍보를 통해 관광지의 매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벤트로 ‘남도장터’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약 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실시간 시청자 수는 1만7000여 명을 달성, 회당 동시 접속자 수 역시 200명을 웃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아담담고 시원한 정정 전남의 관광명소를 소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광동 전남도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이 강화됨에 따라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에도 목말랐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환경에 대응해 새롭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온택트 버스킹 ‘쿨한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 영상은 전남관광 유튜브 ‘남도여행길잡이’ 및 전라남도 유튜브 ‘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전남도, 6년 연속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

전남도가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매년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대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 증감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해왔다.

전남도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6년 연속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광양시가 대상, 여수시·강진군이 최우수상, 장성군이 우수상, 화순군이 특별상을 받아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과의 연계 및 협력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과 투자유치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1만3000명이 증가했고, 실업자 2000명이 감소했다. 또 고용률 1.2%p, 청년고용률 0.8%p, 경제활동 참가율도 0.9%p가 오르고, 실업률은 0.2%p 내려가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돼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m

전남 10개 시·군에 미세먼지 잡는 ‘노면 청소로봇’ 투입

차량 진입 어려운 취약지 청소
분진·미세먼지 저감효율 탁월

이면도로와 골목길, 전통 시장, 관광지 등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생활속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다목적 노면 청소로봇(사진)이 전남지역에 투입된다. 우선 순천, 광양, 나주,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도내 10개 시·군에 투입 대상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사업은 산업자원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도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 노면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한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됐다.

새로 도입될 청소로봇은 길이 240cm, 폭 96cm, 높이 142cm 크기를 갖추고 있다. 차량 앞쪽에 부착된 장치가 회전하며 미세먼지와 흙먼지, 쓰레기 등을 모아 흡입하고 물을 분사해 재비산을 방지하는 청소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95%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효율과 미세먼지 정정화 능력 5.5CMM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기존 출시된 제품들보다 노면분진과 미세먼지 집진능력이 탁월하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속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1회 충전으로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한 작업 능력을 비롯 화석연료 미사용에 따른 배출가스 감소, 전기모터로 구

동에 따른 주행 및 작업 소음 감소 등 장점도 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청소 취약지인 주택가, 상가, 골목길 등에 쌓인 미세먼지와 쓰레기 청소작업이 가능해져 도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전남산 수산물 매출 급상승

드라이브 스루·온라인 판매
추석 선물 각광...87억 판매고

전남도가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언택트 홍보와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수산물 매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추석 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추석 선물로 건강을 선물하려는 수요로 수산물 선물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판촉으로 올해 87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지난 3월부터 전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산물 시식회와 할인 행사를 가졌으며, 민·관이 함께 추진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전을 펼쳐 9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 판매고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특히 전남도가 운영중인 남도장터에서는 지난 4월 기준 농수축산물 200억원의 매출 중 수산물이 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나 증가했다. 이는 총 매출액 대비 수산물의 비율이 지난해 8%에서 22%로 상승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매출 급상승을 보였다.

또 TV 인기프로그램에서 전남지역 수산물과 관련된 신상품이 출시돼 12억원의 판매실적과 새로운 레시피가 소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 판매 및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가 부진한 수산물을 위한 맞춤형 판로확보 대책도 마련했다. 납치(광어), 우럭, 전복 등 대표 품목의 경우 도와(주)GS리테일이 가진 전남 농수축산물 1500억원의 업무협약으로 수산물 기획전 등 원물 납품으로 지금까지 21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의 영향으로 수산물 적체물량이 일부 해소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일부 품목에서 가격이 상승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정간편식(HMR)도 개발 중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져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이 각광받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는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m

전남도, 폭우피해 축산농 정책자금 33억 지원

전남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16억원,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비’ 12억원 등 총 33억 원을 연리 1% 저리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지난 집중호우로 담양·곡성·구례 등 10개 시·군 축산농가 349개소에서 가축폐사 20만6000마리, 축사·퇴비사 71동 파손 등 약 1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융자 지원으로 가축임식자금 23개소 1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깔짚·미생물 구입 9개소 3억원(2년 거치 일시 상환)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도 축사개보수 1개소 12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 사료구매자금 10개소 5억원(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안정을 찾아 축산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녹색축산육성기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 6700만원을 지원, 폐사 피해가 큰 곡성군·구례군 한우 사육농가에 국내산 조사료 10일분과 축사깔짚 495t을 긴급 공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m

전남도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첫 가동

영암군 금정면 세흥마을
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에 주민 소득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가 도내 첫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6일 “영암군 금정면 세흥마을에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포함 8500만원을 투입,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 공동작업장 지붕에 75kW 태양광발전소를 전남도

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소 설치로 연간 2400만원의 운영수익이 예상되며, 앞으로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 사업과 다양한 복지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역주민이 배제돼 외지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어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